

# 지천서원(知川書院)

김 영 규\*

- 
- I. 머리말
  - II. 지천서원의 역사
  - III. 지천서원의 유적
  - IV. 지천서원의 배향인물
- 

## I. 머 리 말

지천서원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경주김씨들의 동족마을로 알려진 말마리마을에 있는 서원으로 상촌 김자수(桑村 金自粹), 십청헌 김세필(十淸軒 金世弼), 눌재 박상(訥齋 朴祥), 충민공 김저(忠愍公 金저), 남곡 김의(南谷 金寢), 학주 김홍욱(鶴洲 金弘郁), 추곡 김정현(秋谷 金鼎鉉), 성암 김종현(醒巖 金宗鉉) 등 모두 여덟분을 제향하고 있다.

지천서원이 위치한 말마리는 조선 중종때 도학과 학문, 절의로 이름을 날렸던 십청헌 김세필이 입향하여 현재의 서원 위치에 공자당(工字堂)을 짓고 은거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이 지역의 사림(士林) 분위기를 일깨운 곳이다.

지천서원이 있게 한 김세필은 1522년 이곳에 은거한 이후 생을 마치는 1533년까지 12여 년 동안 공자당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지도하였으며, 눌재 박상, 여주지역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던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 등 여러 기묘명현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그는 충주 지역 사림(士林) 사이에서 높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

\* 음성향토사연구회

## II. 지천서원의 역사

### 1. 공자당(工字堂)의 건립

지천서원의 기원이 된 공자당(工字堂)은 당시 충주 목사였던 놀재 박상이 십청헌 김세필의 친구와 후원자로서 공자당의 건립비용을 지원 받아 건립되어, 김세필이 1522년 이곳에 은거한 이후 생을 마치는 1533년까지 12여 년 동안 공자당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지도하였다.

당시에 박필주(朴弼周)가 지은 『십청헌김세필시장(十淸軒金世弼諡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김세필이 머물 것을 정하고 황무지를 개척하고 집을 짓고, 자신의 호를 지비용(知非翁)이라 정했다. 놀재가 당시 충주목사로 있으면서 집을 지어 주었는데 형상이 마치 공자(工字)와 같았고 가운데 중청(中廳)은 강수지소(講授之所)로 삼았다. 기묘사화 이후 학문의 기개가 끊겼으나 선생과 모재(慕齋)가 충주와 여주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후진들을 양성하여 이룬 바가 매우 빛났다.”하여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말마리의 별사(별묘)의 건립

김세필이 충주 팔봉서원(八峯書院)에 제향되어 있었는데, 다시 김세필을 위한 별묘(別廟)를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지천서원이 건립되기 이전에 별사(별묘)가 건립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지천서원지』권1 「서원창시」조의 「영모록(永慕錄)에 “숙종 계유년(숙종19년:1693년)에 십청헌 선생의 제향이 대진(代盡) 친진(親盡)을 맞게 되자 후손들이 별사를 마련하여 독향하기 40여 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3. 지천서원의 창건과 훼손

지천서원의 연혁과 변천에 대해서는 『지천서원지』권1 「서원창시」조와 『지천서원지』권1 「서원폐흥」조에 나타나 있는데 창건과 훼손, 복설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창건

『지천서원지』권1 「서원창시」조의 내용을 보면

“영조 갑인년(1734년),경신년(1740년)간에 충주 지역의 사림들이 심청현 김세필 선생이 서재를 짓고 강학한 것으로 팔봉서원에 제향 되어 제향과 경모를 받지 않는 바가 아니나 ……중략……선생의 선조인 상촌 선생을 비롯하여 충민공, 남곡, 추곡은 선생의 가풍과 유훈을 이어받았고 ……중략……이분들은 족히 백세의 스승이요 일향의 모범이 될 만한 분들로 모두 가히 병향할 분들이 다. 이에 지천에서 강론하던 재실의 곁에 하나의 사우를 짓고 이들 5현을 봉안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다.

2) 1차훼철

『지천서원지』권1 「서원폐흥」조에 영조 갑인·경신년 간에 창건하여 5현을 사우에 봉사한 뒤 불과 10년이 못되어 조정의 명령으로 훼철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3) 중건과 추배

정조 경신년(1796년)에 조정에 청하여 중건하고 복설하면서, 1800년에 3칸의 사우를 완성하여 5현을 봉안하고, 서원이 중건된 후 1802년에 이르러 학주 김홍욱이 상촌의 후예로서 가히 병향할 만하다 하여 추배하여 모두 6현을 제향하게 되었다.

4) 대원군의 훼철과 복설

고종 무진년(186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두 번째로 훼철되었다. 한편 『지천서원지』권1 「서원재용조」에 서원의 토지는 향교로 이속되어 뜻있는 유생들의 성원으로 겨우 제수를 마련하여 봉향한다고 하였다.

그 후 26년만인 계사년(고종30년:1893년)에 다시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오다, 무술년(광무2년:1898년) 여름에 공자당을 증건하였으며 2차 증건이었다.

그리고 그 후 33년만인 병자년(1936년) 봄에 유림과 후손들이 공자당 우측에 사우를 증건하여 놀재 박상과 성암 김종현을 추가 배향하여 8현서원이 되었다.

### Ⅲ. 지천서원의 유적

지천서원은 팔성산을 배경으로 하여 산 중턱의 높은 경사면을 3단으로 정지하여 첫째 단에는 강당인 공자당(工字堂)을, 그 좌측의 둘째 단에는 내삼문이 있으며, 사당은 이 삼문을 지나

높게 축조된 기단 위에 배치되어 있다. 지천서원은 사당을 중심으로 강당이 우측에 위치하는 좌묘우당식(左廟右堂式)의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그림 1. 지천서원 전경(좌측)



그림 2. 지천서원 전경(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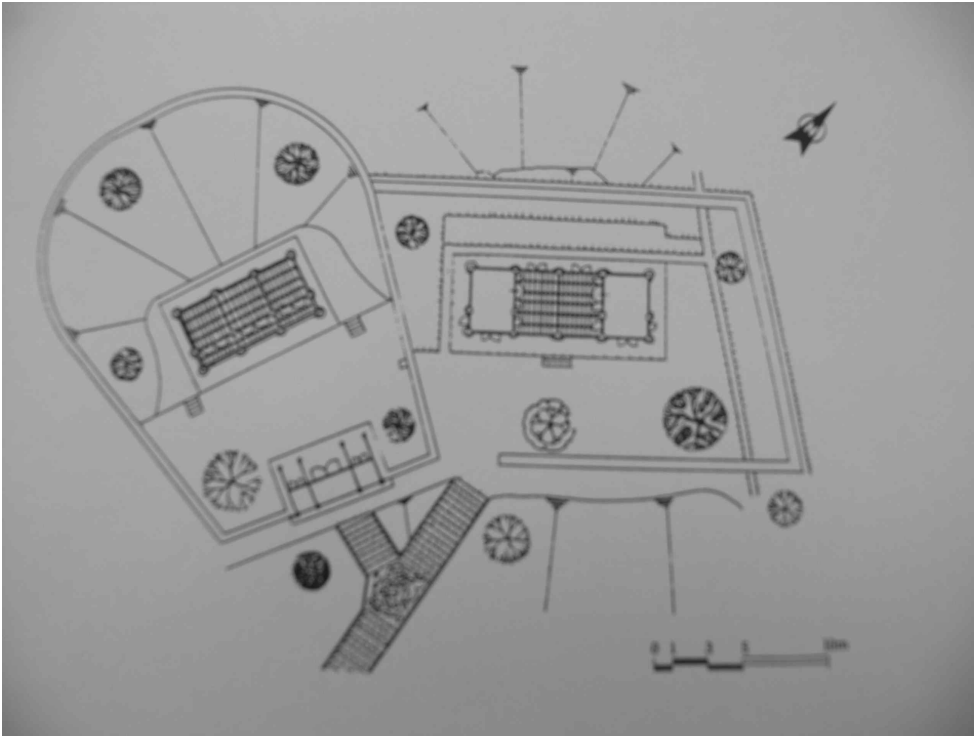


그림 3. 지천서원 배치구조도

### 1. 공자당(工字堂)

공자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처마팔작지붕집으로 민도리계통의 집이다. 정면 4칸 중 양단 칸이 온돌방이고, 중앙 2칸은 통칸의 대청으로 하여 우물마루를 깔고 있다. 정면에 공자당(工字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창호는 정면 4칸 중 온돌방으로 되어 있는 양단칸은 쌍여닫이 띠살문을 달고, 대청으로 되어 있는 중앙 2칸은 개방시켜 출입이 쉽고, 시야를 트이게 하였다.

### 2. 사우(祠宇)

사당은 대리석으로 높은 축대 그 위에 세워졌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개방형 평면으로 1고주 5량집으로 겹처마팔작지붕집이다.

사당 내부는 통칸으로 하여 모두 우물마루를 깔고 있으며, 뒷간부에도 특이하게 우물마루를



그림 4. 지천서원 공자당(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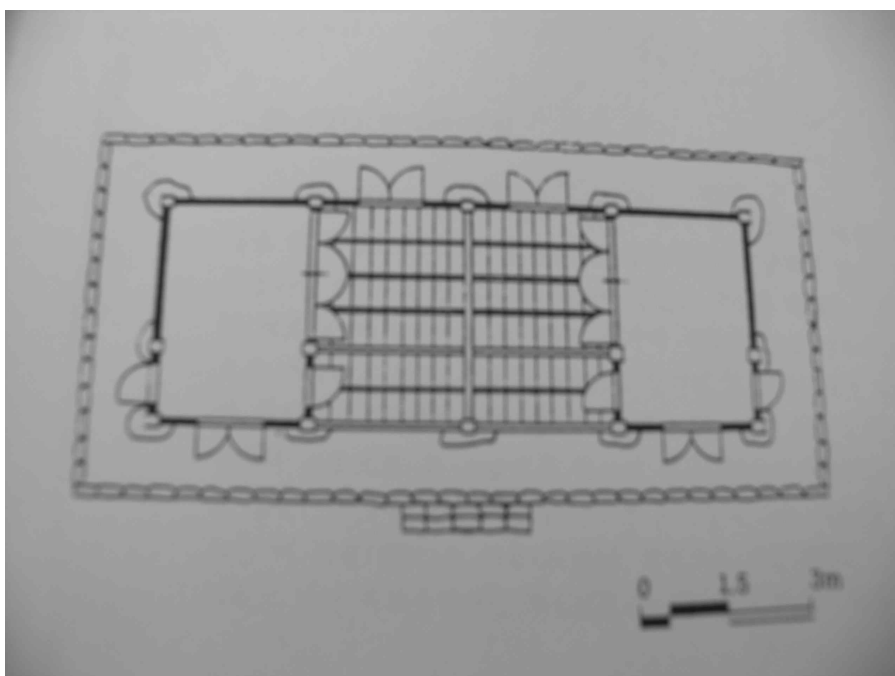


그림 5. 공자당 평면도

놓았다.

창호는 정면 3칸 모두를 4분합 띠살문으로 하여 들어열개를 달아 출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측면과 후면은 흙벽으로 막음을 하였다.



그림 6. 지천서원 사당

#### IV. 지천서원의 배향인물

##### 1. 상촌 김자수(桑村 金自粹)

김자수(1351~1413)의 자는 순중(純仲), 호는 상촌(桑村)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김자수는 신현의 제자로서 공민왕19년(1370)인 20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여 이색·정몽주·박상충·이승인 등과 더불어 성리학의 지론을 근거로 실천에 옮긴 성리학자이다.

김자수는 성리학의 대의명분과 의리의 실천을 평생의 지침으로 삼아 1392년 조선이 건국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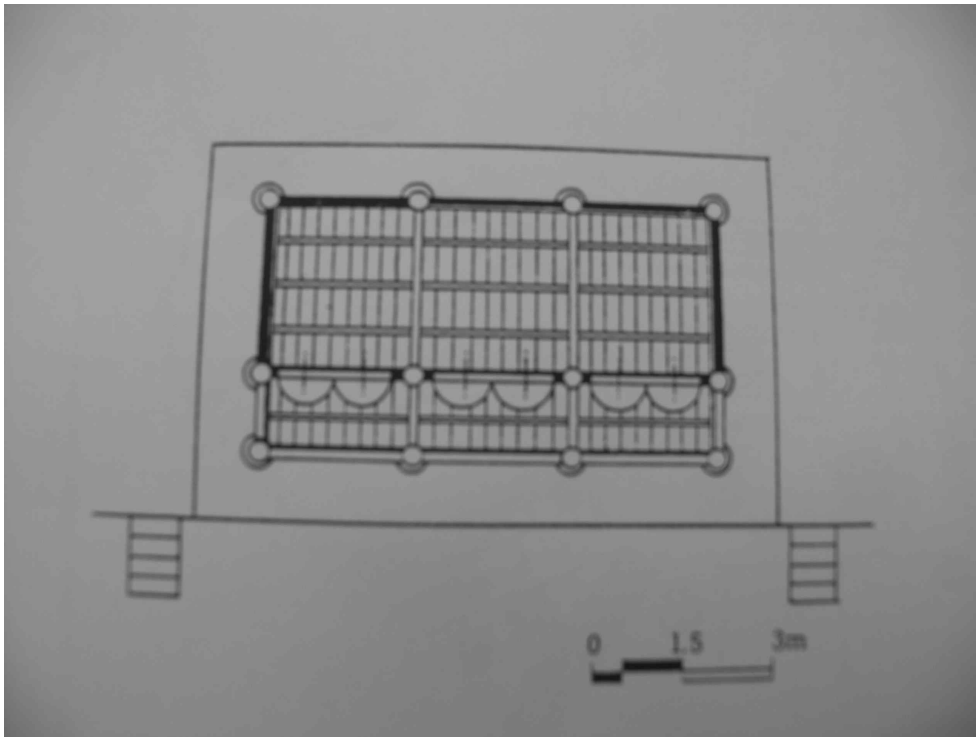


그림 7. 사당평면도

자 고려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 조선의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 후 안동에서 만년에 은거하며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하여 충절을 지켰다.

김자수는 죽은 후에 학자들의 공감을 받게 되어 1665년 영동의 초강서원에 봉안을 시작으로 안동의 물계서원에, 안동의 인계서원에, 그리고 두문동서원, 표정사 등에 봉안되었다.

## 2. 십청헌 김세필(十淸軒 金世弼)

김세필(1473~1533)의 자는 공석(公碩), 호는 십청헌(十淸軒), 지비옹(知非翁)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상촌 김자수의 4세손으로 성종21년(1490)에 18세로 임현시에서 수석을 하였으며, 그 후 이조참판과 성균관 동지를 지냈고, 이조판서와 학문의 최고봉인 대제학문간공이라는 시호교지가 내린 학자로 정치개혁 등 시무7개항과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주장한 성리학자이다.

1520년 경연에 입시하여 기묘사화에서 조광조에게 사사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여 음죽현의 유춘역으로 유배를 당하고 유배에서 풀려나 현재 지천서원이 있는 팔성리로 낙향하

여 학문을 닦고 후학을 교육하였다.

김세필은 충주의 팔봉서원과 지천서원에 봉안되었다.

### 3. 놀재 박상(訥齋 朴祥)

박상(1474~1530)의 자는 창세(昌世), 호는 놀재(訥齋), 시호는 문간(文簡), 본관은 충주이다.

박상은 연산2년(1496)에 진사가 되고, 1501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수찬,교리,응교 등을 거쳐 상부와 충주목사를 지냈다. 충주목사로 있으며 기묘사화로 유배되었다가 방면된 김세필과 여주에 있던 모재 김안국과 접촉하며 학문을 강론하였다.

박상은 음성의 지천서원과 광주의 월봉서원에 제향 되어 있다.

### 4. 충민공 김저(忠愍公 金阻)

김저(1512~1547)의 자는 학광(學光), 시호는 충민공(충민공), 본관은 경주이다.

김저는 김세필의 아들로 을사사화(1545년) 때 윤원형이 윤임을 논죄할 때 윤원형에 맞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상소를 하였다가 기혹한 형을 받고 유배를 당하였으며, 2년 뒤인 1547년에 왕명으로 사사되었다.

### 5. 남곡 김의(南谷 金癡)

김의(1572~1649)의 자는 여망(汝望), 호는 남곡(南谷), 본관은 경주이다.

김세필의 증손으로 선조36년(1603)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태학에 들어갔으며, 그 후 음죽현감, 창녕현령, 곡성현감, 공조정랑 등을 지냈다.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었다.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

### 6. 학주 김홍욱(鶴洲 金弘郁)

김홍욱(1602~1654)의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洲), 시호는 문정(文貞), 본관은 경주이다.

인조13년(1635)에 급제하였으며, 평안도 암행어사, 충청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 등을 역임하

였다.

7. 추곡 김정현(秋谷 金鼎鉉)

김정현(1591~1676)의 자는 중길(重吉), 호는 추곡(秋谷), 송림(松林)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김정현은 인조8년(1630)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섬기기 위하여 지방관리만 자청해서 역임하였다.

8. 성암 김종현(醒巖 金宗鉉)

김종현(1621~1699)의 자는 원거(元거), 호는 성암(醒巖)이다. 송시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효성이 깊어 후릉참봉이 되었다.